

Opening Ceremony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Session: Opening Ceremony

Date/Time: June 3, 2022/09:00-10:00

Welcoming Remarks: Chung Mong Joon,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ongratulatory Remarks:

Henry A. Kissinger, Kissinger Associates, Inc.

Park Jin, Foreign Minister, Republic of Korea

Christopher Del Corso, U.S. Embassy Seoul

Keynote Address: Wendy Sherman, U.S. Department of State

환영사를 통해 정몽준 명예이사장은 한미 외교관계 수립 140 주년을 축하하며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이 국가간 선린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미국은 태평양 너머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깊은 우의를 나누는 친구관계”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 16 개국이 군대를 파견, 1950 년 한국전쟁에서 한국정부와 함께 싸웠음을 지적하였다. 정 이사장은 1953 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교육 및 기타 원조 제공으로 한국이 자유세계의 요새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으나, 현재 국제정세가 중-러의 권위주의화, 폐쇄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석학인 기 소르망을 인용하여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평가하였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공동의 비전이 한일합병, 6.25 전쟁 등 비극적 사태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자신이 1951 년 이후로 한국인들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와 헌신을 목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1953 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관계는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등으로 강화되었으며, 현재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관계를 넘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유사성에 근거한 다층적인 관계로 변화하였음을 상기하였다. 끝으로 그는 기후변화, 팬데믹, 지역적 패권경쟁, 첨단기술관리 및 인공지능 등에서 한미동맹의 구호인 “WE GO TOGETHER”에 걸맞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Opening Ceremony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 세기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이 금년 5 월 21 일 양국 정상회담으로 명백해졌으며, 국가적 의제, 동맹 비전 외에도 다양한 양국 협력의제가 논의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넨 “I trust you”라는 세 단어가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역설하며, 한미 양국은 자유,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공급망 회복력, 핵심기술의 공급망 확보, 원자력, 사이버, 바이오 등 기술협력 등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 또한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진화하여 새로운 도전을 해결할 것을 의심치 않으며, “한미 동맹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무모한 일이다(it i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alliance between US and ROK)”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로 연설을 맺었다.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5 월 21 일의 한-미 정상회담이 군사동맹에서 발전하여 경제, 사회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상기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의 확장 및 심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경제 안보 강화, 인권, 민주주의, 지배구조 진흥을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양국간 전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적시하고, 이외에도 사이버안보, 위기 관리, 보건 관리, 기후변화 등에의 대응을 통한 한-미 경제안보 및 번영 파트너십 발전을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사대리는 민주적 가치, 다양성, 포용성을 통한 한미간 다층적 관계 형성을 희망하며 양국 국민들이 진정한 한미관계의 신속하고 심층적인 발전의 주역이라고 밝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한미 관계가 기후변화,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에 맞설 필요를 지적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한 지역의 국제질서 혼란은 다른 지역에 전파될 것임을 경계하고, 한국이 경제제재 조율, 물자 제공 등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대만해협, 북핵 미사일 위협이 인도-태평양 및 동북아 안보에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Opening Ceremony

The Asan Symposium:
“Celebrating Korea-US Relations: 140 Years and Beyond”
<http://asansymposium.com>

미치는 위협은 심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외교를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지역적 안정을 파괴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재와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summ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speakers or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